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 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

The family value orientations among adolescent, middle and old generation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 경 신

Dept.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Kim, Kyeong Sh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find out general trends of family value orientations among adolescent, middle and old generation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related variables.

For this study, three kinds of questionnaire were used and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1194 samples of three generation groups living in Seoul and Kwangju.

The traditional trends of old generation's value orientations were outstanding while adolescents relatively showed modernized value orientations. The value differences between adolescent and middle generation were larger than between middle and old generation. Especially value orientations of children and sex-role were largely changed, but familism was relatively preserved even in adolescent generation.

The family value orientation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gender, age, education level, income, occupation, and family type. Generally middle and adolescent women showed more modernized value orientations than men and value orientations of three generation were most likely to be correlated with family satisfaction level.

I. 서론

가치관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김태길, 1969),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표준이나 이념 내지 신념이다(정원식, 1969). 따라서 가치관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나아가 만족감이나 행. 불행의 판단에까지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어느 인간, 어느 상황에서

나 극히 중요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치관은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라고 볼 때, 가족에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의 가족은 형태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치의식의 면에 있어서도 친구 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치해 있어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가치관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 사회 또는 개인의 욕구 내지 관심이 변화하면 그 사회나 개인이 인정하는 가치에도 변화가 오므로(김태길, 1996),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가치의 변화를 동반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세대간 혹은 연령집단간 가치 차이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가치 차이가 심화될 때 이렇가지 가족갈등이나 사회문제가 파생되게 된다.

이처럼 가치변화가 야기시키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관해서는 관련연구를 통하여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노인부양문제의 경우 가족주의가치관이나 효도관의 변화와 연관시킨 연구들(김송애, 1991; 임지희, 1989; 한은주·김태현, 1994)을 통하여 그 경향을 알 수 있으며, 결혼관이나 성역할관, 가족주의 가치관 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김명자, 1985; 박태운, 1983; 이미숙, 1997; 이정연, 1982)을 통하여 증가하는 부부갈등이나 이혼문제에 관련된 가치관의 탐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치변화의 흐름을 탐색해 봄은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가치변화의 흐름은 여러세대 집단을 동시에 분석해 봄으로써 파악될 수 있는데, 세대간의 가족가치관 차이를 연구한 논문들은 주로 두 세대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김일명, 1988; 박성연, 1986; 이기숙, 1984; 이길표, 1994)가 많아 세대적 변화를 추적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3세대 연령층을 다룬 경우(김규원, 1995; 성규택, 1995; 이선자,

1989)에도 가족가치관의 일부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체적인 가족가치관의 이해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정립이 가족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족가치관의 여러 영역을 대상으로 세대집단별 가치관을 알아보고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세대간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가족가치관 형성과 가족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반적인 세대별 연령 구성을 20-30년 간격으로 보고(Schaie, 1996) 노년세대, 중년세대, 청소년세대의 3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과 그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하며, 가치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관련 요인을 검토해봄으로써 가족가치관의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가족원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별로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또한 세대별 차이는 어떠한가?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가족가치관은 각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또한 가족관계변인과 가족가치관의 상관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가치관

1) 개념과 영역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하여 연구한 홍승직(1971)은 가치관을 가족가치관, 경제가치관, 정치가치관, 사회가치관, 종교가치관 등으로 분류하였고, 김인자·황응연(1974)은 여기에 도덕, 윤리적 가치관을 첨가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가치 연구에서 가족가치관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가족가치관은 가족

에 관하여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관념체계로서, 가족에 관한 포괄적인 태도(박혜인, 1990)라는 점에서 몇가지 하위개념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옥선화(1984)는 가족가치관을 가족을 형성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배우자선택과 결혼관,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나누어 관련연구들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박혜인(1990)은 가족가치관을 자녀관, 노후관, 여성관, 전통의례관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김순옥·류점숙(1984)은 결혼관, 역할관, 부모부양관, 가족중요도 등으로, 김일명(1988)은 효도관, 조상숭배의식, 성역할관, 가부장권이나 친족의식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박진숙(1984)은 가의식, 혼인의식, 부모부양의식 등으로 나눈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개념들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가족가치관은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 등으로 집약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영역 구분을 통하여 가족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영역별로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관련연구

(1) 결혼관

산업화와 근대화의 촉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결혼관이 수립되어 결혼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변화하였고 결혼형태 또한 연애결혼을 선호하게 되었다. 배우자선택의 방법 변화뿐만 아니라 배우자선택 조건도 변하고 있다. 가문 등의 조건은 이제 더이상 배우자선택의 기준이 되지 못하며 혼전순결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어 결혼의 성관계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김혜선·김영희, 1983; 양명숙, 1996; 이정우·오연옥, 1995).

순결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남녀 미혼 기혼 모두 과반수 이상이 절대 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결혼전보다는 결혼 후의 순결을 강조하였다(박인덕, 1973). 유영주(1976)의 연구에서는 혼전 성관계는 남성에게 어느 정도 허

용되나 여성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들어 고정자(1983)는 미혼남성의 과반수 이상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박진숙(1984)도 남녀 모두 꼭 지켜야 한다고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공미혜(1993), 박순희와 함귀옥(1986), 이정숙(1985)의 연구들에서는 혼전 순결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이중적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결혼의 의의에 있어서는 김순옥·류점숙(1984)은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많아 근대적 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하였으나 이혼의 허용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조영숙(1980)은 여대생의 결혼의 필요성 의식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였고 전미향(1988)도 결혼관이 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2) 성역할관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증가는 성역할 개념에 근거한 가족윤리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김정옥(1980)은 도시화 및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가족내 부부의 역할분화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옥선화(1980)는 역할 분화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역할구분이 지켜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병숙·김윤(1983)의 연구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근대적 역할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행동에서는 완전히 평등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명자(1985)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조사(공보처, 1996)에서는 '여성은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가 66%에 불과한 반면 '결혼, 육아에 상관 없이 원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다'가 40.9%에 달하여 여성직업관의 획기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가정내 의사결정권도 항목별 구분이 지어지거나 비교적 아내의 역할을 더 뚜렷히 규정짓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도 미혼남녀의 성역할관은 비교적 진보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자녀관

정영숙·이선자(1980)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들, 특히 장남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고, 서병숙·김윤(1983)은 대도시에서는 근대적 의식을 보이거나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 남아를 보다 선호한다고 하였다.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고정자의 연구(1983)에서는 '두자녀가 딸일 경우 더이상 낳지 않겠다'에 59.5%가 찬성하여 비교적 개념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명자(1985),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도 아들선호의식에 있어서 비교적 근대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보처 조사(1996)에서는 남아선호의식에 있어서는 '상관없다'가 49.2%이지만 '남아가 더 좋다'도 40.4%로 나타나 여전히 남아선호의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한 부모의 유형도 '자식과 친구처럼 허물 없이 지내는 부모'(76.2%), '자녀의 의사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67.4%)가 높게 나타나 자유주의적 자녀교육관을 엿볼 수 있다.

(4) 효 및 부양의식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노인부양 형태가 변화하고 효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는데, 장남 이외 차남이나 딸과의 동거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장남이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고 있다. 1970년대에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양을 절대 의무시하고 있으나(이천세, 1973) 국가나 사회의 책임도 명시하고 있어 부모부양의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이영하, 1975), 1980년대 들어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병숙·김윤(1983)의 연구에서도 농촌, 도시 모두 노후분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근대적 가치의식이 나타났다고 하였고, 한국인구보건원(1985)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장남부부와의 동거가 38.4%, 상남이외 아들과의 동거가 12.4%, 딸부부와의 동거가 2.4%로 나타나 점차 장남과의 동거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며 서병숙(1988)의 연구에서도 딸 부부와의 동거율이 11.6%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춘희(1987)의 연구에서 보면 장남의 경우에는 동거보조형을 선호

하나 만며느리의 경우에는 별거보조형의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조사(공보처, 1996)에서는 부양자로 아들 딸 관계 없이 자식이 모시면 된다는 응답에 62.4%가 찬성하고 있어 장남이 모셔야 된다는 14.8%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따라서 부모부양 의식은 전통적인 부양의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부양자에 대한 의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가족주의 가치관

1970년대만 하여도 핵가족 현상은 서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핵가족은 증가하나 가치관에 있어 가족주의를 백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정현희, 1978). 1980년대 들어서는 변화가 시작되어 김명자(1980), 이연주(1984)는 주부의 가치의식이 근대적 개념으로 상당히 변화했다고 하였으나 박혜인(1988)은 개인보다 가족관심을 우선시하는 과도기 상태라고 하였다. 김순옥·류점숙(198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족의 유대의식에 있어 전체적으로 강한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였고, 옥선화(1989) 역시 농촌가족에서 가족주의가 전반적으로 지지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후 김규원(1995)의 연구에서도 가족중심주의 가족가치관이 아직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숙(1997)은 부부의 가족주의가치가 덜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2. 가족가치관 관련변인

먼저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세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Bengston의 연구들(1975, 1985, 1989)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주로 세대간의 교환과정을 다루고 있어 가족가치관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다만 Harris(1980)의 연구에서는 3세대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주의와 성역할지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세대간의 차이를 언급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근세이후 사회적 변화가 급진적이어서 세대차를 통하여 가족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일명·김명자(1989)

는 대학생과 기성세대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세대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 기성세대는 전통성을, 대학생세대는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박성연(1986)은 전통적인 자녀관에 있어 모녀간 세대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고, 성규탁(1995)은 세대집단별로 효행의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령층이 효행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좌우하는 변인임을 밝혔으며 가장 현저한 차이는 소년층과 장년층간에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규원(1995)은 가족중심주의나 가부장전통주의에 있어 연령이 많고 세대가 높을수록 지지도가 높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성차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홍준숙(1987)은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는 생각에 남성의 34.3%, 여성의 14.5%가 찬성한다고 하여 성차를 언급하였고, 결혼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강호철(1984), 장휘숙(1995)도 성 허용성에 있어 성차가 나타남을 지적하였으나 조양지(1984)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영옥(1983)은 순결의식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근로자의 차이를 밝힌 바 있다. 양명숙(1996)은 가족가치관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유주의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성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부양 및 효도관에 있어서도 성차가 나타나는데, 박경란·임춘희(1991)의 연구에서 보면 특히 여자노인들은 자녀와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가끔 만나는 것을 더욱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경우 세대간의 유대관계에서는 접촉빈도보다는 접촉의 성격이나 내용을 더욱 중요시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 이동수(1987)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근대적이라고 하였다.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령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연주(1984)는 효에 관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박재간·임춘식(1983)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도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주의가치관에 있어서는 옥선화(1989)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밖에 사회경제적 지위의 중요한 결정변수인 학력이나 직업, 소득수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김명자(1985), 이연주(1984) 등은 주부의 가치의식이 근대적 이념으로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특히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독교 신자인 경우 더 근대적 의식을 가진다고 하였다. 옥선화(1989)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문숙재·임정빈(1988)도 젊은 주부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김일명(1988) 역시 여대생에게 있어 근대성이 높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독교와 교육수준이라고 하였다. 또한 출생순위에 따른 가치의식 차이로는 김윤(1983)의 연구에서 장남의 전통성을 밝힌바 있고, 김송애(1991)는 직업이나 종교, 가족유형 등이 가족주의가치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가족내적인 상호작용변인도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Coleman과 Ganong(1984)은 가족 친밀성이 긍정적인 결혼관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김명자(1985)는 결혼관, 성역할관, 효도관 등 대부분의 가족가치관이 결혼만족도와 관련된다고 하였고 강은령(1989), 최규련(1984) 등은 부부의 대화만족도나 결혼만족도가 가족원의 성역할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숙(1997)은 가족주의가치와 결혼만족의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인구학적변인 및 가족관계변인을 선정하여 가족가치관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1) 관련변인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관련변인으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종교, 가족형태, 출생순위,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였고 가족관계변인으로는 가정생활만족도, 배우자와의 만족도(학교생활만족도), 자녀와의 만족도 등을 각각 단일문항으로 조사하였다.

2) 가족가치관 척도

① 결혼관 : 강은숙(1981), 송재희(1988), 홍준숙(1987), Melton & Thomas(1976), Newcomer & Udry(1984), Surra(1990)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결혼의 필요성(3문항), 배우자선택양식(1), 사랑 및 성의식(4), 부부의식(5), 결혼의례(1), 이혼·재혼관(2) 등 총 16항으로 구성하였다.

② 성역할관 : 김동일(1991), 정종희(1983), Mason & Bumpass(1975), Lueptow(1980), Smith & Self(1980)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남녀평등의식(2문항), 성고정관념(2), 여성취업의식(1) 등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③ 자녀관 : 고정자(1983), 강숙경(1992), 양명숙(1996), Borman & Stockdale(1979), Leavy & Hough(1983)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녀의 필요성(3문항), 자녀양육방식(3), 자녀양육관(2), 남아선호사상(4)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④ 부양 및 효도관 : 김송애(1991), 서병숙(1988), 허훈(1988) 등의 연구를 참고로 부양의식(3문항), 부양형식(1), 부모자녀관계(4), 효의식(4)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⑤ 가족주의 가치관 : 김규원(1995), 김일명(1989), 옥선화(1989) 등의 연구를 참고로 가족구조(1문항), 가부장의식(4), 친족의식(6), 가족의 중요성(4)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관련전공자 8인으로부터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조사에 사용되었다. 각 영역별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2. 조사대상 및 절차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와 광주시에 거주하는 노년, 중년, 청소년세대에 해당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노년세대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호별방문 혹은 여가시설방문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

<표 1> 가치관 척도 항목수 및 신뢰도(Cronbach's α)

	항목수	신뢰도		
		노년	중년	청소년
결혼관	16	0.79	0.71	0.83
성역할관	5	0.75	0.69	0.82
자녀관	12	0.82	0.77	0.80
효도관	12	0.68	0.68	0.65
가족주의 가치관	15	0.78	0.75	0.77

고 중년기세대는 노년기의 자녀세대인 40대를 주축으로하여 개별 배우하거나 교육시설, 직장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청소년세대는 중년기의 자녀세대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노인의 경우에는 관련 전공 대학(원)생 20명을 교육한 후 면접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총 배우수는 1300부(노년기 300부, 중년기 650부, 청소년기 350부)로서 이 중 1230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기재되거나 연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고 총 1194부(노년기 253부, 중년기 613부, 청소년기 328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최종분석된 응답자의 거주지는 서울 총 643명(노년 106, 중년 350, 청소년 187)이며 나머지 551명(노년 147, 중년 263, 청소년 141)은 광주 거주자이다. 예비조사는 1987년 10월 6일 부터 10일까지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조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2>와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노년기, 중년기, 청소년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으며 연령은 노년기의 경우 66세-70세 사이가 가장 많고 중년은 40대가, 청소년은 17세가 가장 많다. 교육수준은 노년기의 경우 국졸자, 중년은 고졸자가 가장 많으며 종교는 노년, 중년의 경우 불교가 많고, 청소년은 무종교, 기독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노년은 50만원 이하, 중년 및 청소년이 응답한 가족소득은 100만원대가 가장 많고 직업은 노년은 무직이, 중년은 자영업·서비스직이, 청소년이 응답한 부의 직업은 사무직인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출생순위는 노년, 중년의 경우 중간

이, 청소년은 맏이가 가장 많고 가족형태는 노년은 확대가족이 많으나 중년, 청소년은 핵가족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3. 자료분석

표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주요 통계방법은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을 알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이 산출되었으며, 변인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Duncan test가 이루어졌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가 산출되었고, 이들 자료는 PC용 SAS program에 의해 분석되었다.

IV. 연구결과

1.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및 세대별 차이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및 세대별 차이는 <표 3>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노년기(253)		중년기(613)		청소년기(328)	
		N	%	N	%	N	%
성별	남	107	42.3	285	46.5	139	42.4
	여	146	57.7	328	53.5	189	57.6
연령 : 노년/중년/ 청소년	61-65세/38-40/15세	72	28.5	31	5.1	17	5.2
	66-70세/41-50/16세	74	29.2	516	84.2	83	25.3
	71-75세/51-53/17세	52	20.6	66	10.8	168	51.2
	76세이상/·/18세	55	21.7	·	·	60	18.3
교육수준	국졸	145	57.3	41	6.7		
	중졸	53	21.0	103	16.8		
	고졸	40	15.8	319	52.0		
	대졸이상	15	5.9	150	24.5		
종교	기독교	55	21.8	132	21.5	109	33.2
	불교	81	32.0	194	31.6	51	15.5
	천주교	37	14.6	96	15.7	51	15.5
	무종교	80	31.6	191	31.2	117	35.7
수입 : 노년/중년	50만원/100만원이하	163	64.4	56	9.1	27	8.2
	51-100만원/101-200만원	46	18.2	319	52.0	175	53.4
	101-200만원/201-300만원	31	12.2	133	21.7	75	22.9
	201만원이상/301만원이상	13	5.2	105	17.1	51	15.5
직업	단순노무직	42	16.6	26	4.2	20	6.1
	자영, 서비스	40	15.8	211	34.4	131	39.9
	사무직	22	8.7	134	21.9	138	42.0
	전문직	·	·	39	6.4	36	11.0
	무직	149	58.9	203	33.1	3	0.9
출생순위	맏이	94	37.2	182	29.7	146	44.5
	중간	111	43.9	324	52.9	53	16.2
	막내	48	19.0	107	17.5	129	39.3
가족형태	핵가족	122	48.2	541	88.2	294	89.6
	확대가족	131	51.8	72	11.8	34	10.4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의 전체 경향이나 영역별 경향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김명자, 1985; 박진숙, 1984; 이미숙, 1997)을 참고하여 가치관의 전통성과 근대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며, 중간점인 3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경우는 전통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낮은 경우에는 근대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노

년세대는 각 영역마다 중간점수 3점을 상회(전체평균 3.60)하고 있어 비교적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년세대는 3점을 약간 넘는(전체평균 3.14) 정도로서 전통적인 가치성향이 노년에 비하여 약화되어 있고, 청소년세대는 대부분 3점 이하(전체평균 2.58)로 전통적 가치관이 크게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대별 차이는 검증 결과

<표 3>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및 세대별 차이

	노년		중년		청소년		F
	M	SD	M	SD	M	SD	
결혼의 필요성	4.45	0.69	4.05	0.70	3.51	0.91	112.95***
배우자 선택양식	2.64	1.14	2.45	0.94	1.58	0.89	109.96***
사랑 및 성의식	3.54	0.63	3.31	0.62	3.02	0.77	43.73***
부부관계	3.48	0.61	2.96	0.55	2.17	0.64	366.90***
결혼의례	2.77	1.25	2.43	0.97	1.76	0.85	79.40***
이혼·재혼관	3.79	0.90	3.20	1.02	2.31	1.06	154.42***
결혼관	3.44	0.51	3.07	0.38	2.39	0.43	469.49***
남녀평등의식	3.51	0.98	3.18	0.94	2.14	1.06	167.64***
성고성관념	3.32	1.13	2.84	0.93	1.96	0.87	155.73***
여성 취업의식	3.84	1.11	3.40	1.02	2.49	1.20	119.19***
성역할관	3.56	0.85	3.14	0.72	2.20	0.88	235.80***
자녀의 필요성	3.98	0.75	3.41	0.74	2.91	0.85	131.77***
자녀 양육방식	3.52	0.74	3.23	0.65	2.75	0.68	98.09***
자녀 직업관	3.63	1.16	2.80	1.08	2.07	0.96	150.42***
남아선호사상	3.69	0.97	2.63	0.84	1.82	0.78	340.86***
자녀관	3.70	0.70	3.02	0.60	2.39	0.60	312.69***
부양 의식	3.29	0.68	2.77	0.65	2.53	0.64	96.07***
부양 형식	3.71	1.18	3.33	1.11	3.31	1.00	122.7***
성인부모자녀관계	3.68	0.82	3.12	0.75	2.86	0.64	91.06***
효의식	2.90	0.54	2.83	0.53	2.82	0.55	1.93
부양 및 효도관	3.39	0.55	3.01	0.51	2.88	0.46	75.87***
가족 구조	3.72	1.13	3.37	1.04	2.94	1.02	39.26***
가부장 의식	3.72	0.77	3.07	0.66	2.32	0.65	301.87***
친족 의식	3.96	0.60	3.39	0.61	3.05	0.65	162.36***
가족의 중요성	4.23	0.59	4.05	0.57	3.76	0.68	45.17***
가족주의 가치관	3.91	0.54	3.47	0.48	3.02	0.51	219.34***

Duncan test 결과 '효의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A-B-C로 집단분류됨.

* $p < .05$ ** $p < .01$ *** $p < .001$

'효의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점수를 비교해보면 노년과 중년세대의 차이보다 중년과 청소년세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젊은 세대의 가치 변화가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 점수로 볼 때 노인세대는 가족주의가치관, 자녀관, 성역할관, 결혼관, 부양 및 효도관 순으로 전통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중년세대의 경우에는 가족주의가치관, 성역할관, 결혼관, 자녀관, 부양 및 효도관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세대 역시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가장 전통적인 경향이 나타났고 부양 및 효도관, 결혼관과 자녀관, 성역할관으로 갈수록 근대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대별 점수 차이를 보면 가족주의가치관에서는 전통성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으나 성역할관이나 자녀관 등은 크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관에서는 노년과 중년세대의 점수 차이가 크고, 성역할관과 결혼관에서는 중년과 청소년세대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녀관은 중년세대에서 변화가 커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고, 성역할관과 결혼관은 젊은 세대에서 특히 크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자녀관에서 특히 자녀의 직업관, 남아선호사상 등에서 중년세대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했으며, 청소년의 경우 성역할관에서는 남녀평등의식이, 결혼관에서는 이혼·재혼관, 배우자 선택양식 등이 크게 변화한 항목이다. 노년과 청소년세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역시 남아선호사상, 자녀직업관 등이므로 결론적으로 가족가치관 중에서는 성역할관과 자녀관의 변화가 가장 뚜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에서 세집단 모두 전통성이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 가족 자체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김규원(1995), 육선화(1989, 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부양 및 효도관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전통성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세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노인세대의 효의식의 경우는 근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노인

세대 자체의 의식구조가 이미 변해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중년세대나 청소년세대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은 부양형식에 있어서도 중년과 같은 정도로 동거부양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 효에 관한 관념은 노인세대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데다 젊은세대의 부양의무의식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어 가족가치관 중에서 가장 세대간 근접성을 보여주는 영역이 되고 있다.

2.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가치관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족가치관이 세대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는 <표 4>~<표 6>에서 보여주고 있다.

노년의 경우 성별 차이는 성역할관에서만 나타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 여성 노인들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전통적인 성역할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년, 청소년세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점수가 낮으므로 여성의 식 변화는 중년세대에서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근대성은 양명숙(1996), 이동수(1987)의 연구에서 지적한바 있다.

<그림 1>은 이러한 성별, 세대별 차이를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노년여성의 점수가 가장 높고 노년남성, 중년남성, 중년여성, 청소년남성, 청소년여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년의 성차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중년, 청소년으로 갈수록 성차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성역할관에 있어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가 지나치게 심화되는데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효도관에서는 중년여성보다 청소년남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남성들의 전통적 의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으며, 성역할관의 경우에도 중년여성과 청소년남성의 점수가 상당히 근접하여 세대와 성 특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특히 중년여성의 가치의식이 상당한 정도로 근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노인의 경우 모든 가치관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년, 청소년

〈표 4〉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노년세대의 가족가치관 차이

변인		N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도관			가족주의가치관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성별	남	107	3.43	0.16		3.44	1.98		3.64	1.45		3.34	1.20		3.92	0.18	
	여	146	3.45			3.65	*		3.75			3.42			3.91		
연령	60-65세	72	3.23	6.50	B	3.16	9.64	C	3.53	7.32	C	3.17	14.00	C	3.73	10.26	B
	66-70세	74	3.44	***	A	3.45	***	B	3.70	***	B	3.27	***	C	3.88	***	B
	71-75세	52	3.53		A	3.64		AB	3.77		AB	3.48		B	3.89		B
	76세이상	55	3.58		A	3.91		A	3.90		A	3.74		A	4.22		A
교육수준	국졸	145	3.56	8.71	A	3.68	7.13	A	3.85	14.90	A	3.54	9.92	A	4.04	8.19	A
	중졸	53	3.31	***	B	3.46	***	AB	3.57	***	B	3.29	**	AB	3.78	***	BC
	고졸	40	3.21		B	3.06		B	3.48		BC	3.06		B	3.64		B
	대졸이상	15	3.21		B	3.12		B	3.27		C	3.23		B	3.92		AB
종교	기독교	55	3.44	1.20		3.45	1.38		3.69	2.91	AB	3.21	3.09	B	3.86	1.31	
	불교	81	3.47			3.65			3.69	*	AB	3.39	*	AB	3.98		
	천주교	37	3.28			3.36			3.56		B	3.43		B	3.79		
	무종교	80	3.49			3.62			3.82		A	3.51		A	3.94		
수입	50만원이하	163	3.52	7.35	A	3.66	6.81	A	3.84	14.97	A	3.51	8.76	A	4.04	9.40	A
	51-100만원	46	3.37	***	AB	3.39	***	AB	3.54	***	B	3.18	***	B	3.67	***	B
	101-200만원	31	3.22		BC	3.03		B	3.48		BC	3.07		B	3.66		B
	201만원이상	13	3.01		C	3.08		B	3.27		C	3.35		AB	3.83		AB
직업	단순노무직	42	3.30	4.86	AB	3.42	5.07	AB	3.69	10.63	AB	3.19	6.4	B	3.77	8.43	B
	자영, 서비스	40	3.31	**	AB	3.08	**	B	3.56	***	B	3.34	***	AB	3.71	***	B
	사무직	22	3.24		B	3.35		AB	3.31		C	3.10		B	3.69		B
	무직	149	3.53		A	3.75		A	3.82		A	3.51		A	4.05		A
출생순위	말이	94	3.41	1.74		3.48	1.31		3.68	0.11		3.43	0.36		3.90	0.84	
	중간	111	3.49			3.65			3.72			3.39			3.96		
	막내	48	3.43			3.47			3.72			3.34			3.84		
가족형태	핵가족	122	3.37	2.70		3.41	2.24		3.69	0.82		3.25	10.50	B	3.91	0.96	
	확대가족	131	3.53	**		3.65	*		3.74			3.48	***	A	3.92		

* p<.05 ** p<.01 *** p<.001

〈표 5〉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중년세대의 가족가치관 차이

변인		N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도관			가족주의가치관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성별	남	285	3.17	44.62	A	3.37	58.71	A	3.14	22.44	A	3.16	48.84	A	3.57	22.99	A
	여	328	2.97	***	B	2.94	***	B	2.91	***	B	2.88	***	B	3.38	***	B
연령	38-40세	31	2.89	7.09	C	3.07	2.51		2.81	7.12	B	2.94	7.48	B	3.43	3.55	B
	41-50세	516	3.06	**	B	3.13			3.00	***	B	2.99	***	B	3.45	*	AB
	51-53세	66	3.20		A	3.30			3.25		A	3.24		A	3.62		A
교육수준	국졸	41	3.13	1.15		3.27	3.00	A	3.31	5.99	A	3.10	1.44		3.64	3.91	A
	중졸	103	3.11			3.21	*	AB	3.14	***	AB	3.08			3.54	**	AB
	고졸	319	3.05			3.17		AB	2.97		B	3.00			3.46		BC
	대졸이상	150	3.04			2.99		B	2.96		B	2.96			3.39		C

변인		N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도관			가족주의가치관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성별 종교	기독교	132	2.97	6.76	C	3.01	4.65	B	2.96	7.50	B	2.99	4.01	A	3.41	7.01	BC
	불교	194	3.16	***	A	3.17	**	AB	3.05	***	AB	3.05	**	A	3.56	***	C
	천주교	96	3.01		BC	3.00		B	2.79		C	2.85		B	3.31		A
	무종교	191	3.07		AB	3.26		A	3.13		A	3.06		A	3.50		AB
수입	100만원이하	56	3.15	2.46		3.32	3.09	A	3.19	7.03	A	3.17	4.41	A	3.65	4.71	A
	101-200만원	319	3.08			3.17	*	AB	3.05	***	A	3.04	*	AB	3.47	**	B
	201-300만원	133	3.07			3.12		AB	3.04		A	2.99		CB	3.47		B
	301만원이상	105	2.98			2.98		B	2.79		B	2.87		C	3.35		B
직업	단순노무직	26	3.10	3.42	A	3.38	8.45	AB	3.23	4.98	A	3.16	5.79	A	3.54	3.62	AB
	자영, 서비스	211	3.11	**	A	3.26	***	AB	3.07	***	AB	3.08	***	A	3.54	**	AB
	사무직	134	3.11		A	3.14		BC	3.08		AB	3.05		AB	3.47		AB
	전문직	39	3.08		A	3.41		A	3.11		A	3.11		A	3.57		A
	무직	203	2.98		A	2.92		C	2.87		B	2.87		B	3.37		B
출생 순위	만이	182	3.08	2.38		3.18	0.58		3.06	0.69		3.06	1.27		3.51	0.76	
	중간	324	3.04			3.17			3.00			2.99			3.45		
	막내	107	3.13			3.16			2.99			2.97			3.46		
가족 형태	핵가족	541	3.06	0.14		3.13	0.70		3.01	1.34		2.99	9.04	B	3.46	4.57	B
	확대가족	72	3.08			3.22			3.10			3.20	**	A	3.60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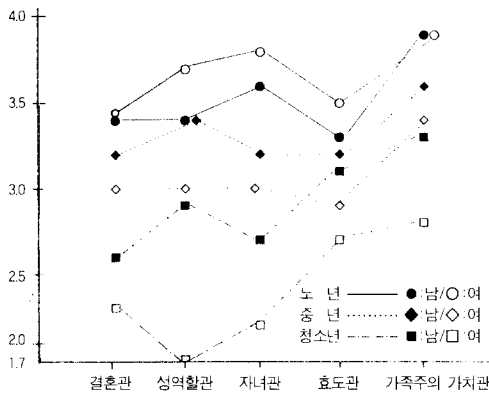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표 6>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청소년세대의 가족가치관 차이

변인		N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도관			가족주의가치관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성별	남	139	2.58	53.24	A	2.87	236.5	A	2.69	68.88	A	3.12	80.59	A	3.28	79.09	A
	여	189	2.25	***	B	1.70	***	B	2.17	***	B	2.70	***	B	2.82	***	B
연령	15세	17	2.06	9.56	C	1.37	19.47	C	2.04	44.64	B	2.45	14.89	C	2.58	13.75	C
	16세	83	2.31	***	B	2.04	***	B	2.29	***	B	2.78	***	B	2.92	***	B
	17세	168	2.50		B	2.50		A	2.56		A	3.02		A	3.18		A
	18세	60	2.29		A	1.77		B	2.14		B	2.73		B	2.84		B
종교	기독교	109	2.44	1.99		2.37	4.87	A	2.41	0.94		2.90	2.73	A	3.01	2.51	
	불교	51	2.45			2.20	**	A	2.44			2.98	*	A	3.14		
	천주교	51	2.28			1.80		B	2.26			2.73		B	2.87		
	무교	117	2.37			2.21		A	2.40			2.89		A	3.05		
수입	100만원이하	27	2.47	1.58		2.09	0.91		2.37	0.85		3.04	2.67	A	3.04	1.39	
	101-200만원	175	2.42			2.28			3.43			2.91	*	AB	3.07		
	201-300만원	75	2.31			2.09			2.38			2.83		B	2.99		
	301만원이상	51	2.37			2.16			2.28			2.77		B	2.98		
직업	단순노무직	20	2.57	1.69		2.52	2.41	A	2.61	2.08		3.08	3.13	A	3.39	4.69	AB
	자영, 서비스	131	2.41			2.30	*	A	2.43			3.03	*	A	3.02	**	BC
	사무직	138	2.34			2.03		A	2.29			2.72		A	2.93		C
	전문직	36	2.40			2.25		A	2.47			2.94		A	3.11		AB
	무직	3	2.68			2.33		A	2.69			3.17		A	3.51		A

변인	N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도관			가족주의가치관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출생 순위	말이	146	2.33	2.64		2.18	2.17		2.30	3.33	B	2.83	1.51		2.97	0.99	
	중간	53	2.48			2.00			2.51	*	A	2.89			3.06		
	막내	129	2.42			2.30			2.41		AB	2.93			3.05		
가족 형태	핵가족	294	2.39	0.07		2.20	0.00		2.39	0.14		2.80	0.16		3.00	5.27	B
	확대가족	34	2.41			2.19			2.43			2.91			3.21	*	A

* p<.05 * p<.01 *** p<.001



<그림 1>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성별 차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특히 청소년은 1세 단위로 연령구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차가 나타나고 있어, 가치관에 있어 연령적 변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성역할관에서의 점수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중년의 경우 성역할관에서의 연령차는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중년의 성역할관은 어느 정도 변화된 후 집단내에서 일정한 안정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특히 76세 이상과 그 이하 집단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효도관의 경우에는 70세 이하 집단과 그 이상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노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많이 보이는데, 특히 국졸자와 그 이상 학력자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중년의 경우에는 자녀관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종교는 노년과 청소년세대에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중년에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불교나 무종교인 경우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 있으며 노년의 경우에도 자녀관, 효도관 등에서 무종교인 경우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김명자(1985), 이연주(1984)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어 이들 집단이 가족가치관에 있어 전통성이 강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노인에게 있어 특히 두드러지며, 중년에도 결혼관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거나 청소년은 거의 가족소득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역시 노년과 중년 세대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년은 무직인 경우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고연령층이 무직인 경우가 많아 연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무직을 제외하고는 사무직의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년의 경우 대체로 무직인 경우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이는 여성들 다수가 무직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상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는 단순노무직에 있어 다소 전통적 성향이 높게 나타나나, 반면 가족주의 가치관에서는 전문직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인 경우와 전문적인 경우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가족주의가치관의 경우 가족응집성 고취 등을 통하여 계층 유지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가치관 차이는 노년세대가 가장 심화되어 있고 중년, 청소년의 순으로 그 차이가 둔

화되고 있다. 직업이나 학력 차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젊은세대로 갈수록 가치관의 동질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생순위는 만이의 경우 효도관 등에 있어 다소 점수가 높게 나왔으나 김윤(1983)의 연구와 반대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가족가치관 자체에 출생순위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가족형태는 노년의 경우 확대가족의 노인들이 전통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년은 효도관과 가족주의가치관에 있어서만 확대가족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변인과 가족가치관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노년, 중년세대는 배우자만족도와 가치관과의 상관성이 유의하며 청소년은 가정생활만족도와 상관성이 보다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역별로는 가족주의 가치관과 가족관계변인과의 상관성이 가장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노년세대의 경우에는 가치관과 만족도 점수가 부적 상관을 이루어 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가족관계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중년, 청소년세대는 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가치관은 가정생활 만족도나 부모자녀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족가치관 점수가 높은 전통적인 성향

을 가진 청소년이 가정생활이나 부모자녀관계에 더 만족하는 것이므로, 결국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가족 구성원이 만족할 때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가족내 갈등의 소지가 감소될 수 있고 부모자녀간의 가치 일치도 보다 용이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V.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가치관은 자녀관에서는 노년과 중년세대와의 차이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결혼관, 성역할관 등은 청소년세대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노년세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아직 전통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중년세대 여성의 경우 뚜렷한 근대적 경향으로의 변화를 보여, 여러가지 가치 변화를 야기시키는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이 중년 이후 세대의 여성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에게 있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리라 보고, 부부상담과 교육 등에 있어서 중년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설정이 요구되며 미혼남녀에 대한 의식교육 역시 성차를 감소시키려는 관점에서 강화되어야 하리라 본다.

부양 및 효도관에 있어서는 특히 노년세대의 효의식이 다소 근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인들 스스로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부양의 문제

<표 7> 가족관계변인과 가족가치관의 상관관계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
노년기	가정생활만족도	-0.051	0.047	-0.100	0.060	0.064
	배우자만족도	-0.062	-0.228***	-0.247***	-0.213***	-0.190*
	부모자녀만족도	-0.058	0.008	-0.132*	0.026	0.031
중년기	가정생활만족도	0.109*	0.078	0.008	0.135***	0.253***
	배우자만족도	0.131**	0.126**	0.050	0.137***	0.247***
	부모자녀만족도	-0.030	-0.011	0.014	-0.006	0.104**
청소년기	가정생활만족도	0.237***	0.117*	0.269***	0.296***	0.384***
	학교생활만족도	0.104	0.049	0.117*	0.067	0.147**
	부모자녀만족도	0.128*	-0.006	0.064	0.141*	0.112*

* p<.05 ** p<.01 *** p<.001

를 해결하고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함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세대의 이러한 변화를 사회에서 적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지지, 협조해주는 사회적 체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좀더 효과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청소년들 역시 어느 정도는 전통적 부양가치관을 견지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이끌어 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주의가치관의 경우에는 노년세대에서 청소년세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가족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고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가치관 변화의 정도에 맞는 체계적인 가족생활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의 미래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변인별 차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면, 소득이나 학력이 낮은 노년세대에서는 비교적 전통적 가치관을 보이는 반면 청소년세대에서는 소득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특히 저소득층에서의 가치관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저소득계층의 경우 맞벌이의 요구도가 높고 노후 경제적 독립성이 낮아(김태현, 1994) 성역할관이나 부모부양관 등에 있어 가족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리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수용자세를 교육시키는 기회가 증대되어야 하리라 본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해 가치변화의 적응능력을 함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년세대나 청소년세대의 경우 가족내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와 전통적 가치의식이 상호 연관되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치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만족한 가족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의 장점을 수렴하고 새로운 가치에로 적절히 변용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대를 거쳐 안정된 가족가치관의 전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만족스런 부모자녀관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광범위한 가족가치관을 다루다

보니 가치관의 세부 내용을 깊이있게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며, 가치관 변화의 과정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쌍으로 표집하여 가치관의 전달과정을 추적하는 보다 역동적인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 참고문헌

- 1) 강숙경(1992).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2) 강은령(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3) 강은숙(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4) 강호철(1984).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경상대 교육석사논문.
- 5) 고정자(1983). 미혼남성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권 2호, 89-106.
- 6) 공미혜(1983). 은폐된 성, 과장된 성: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연구. 부산대여성연구 4, 27-47.
- 7) 공보처(1996).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 8)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9) 김동일(1991). 성의 사회화. 문음사.
- 10) 김명자(1980). 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식 변용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8집.
- 11) 김명자(1990).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4, 139-166.
- 12) 김송애(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13) 김순옥·류집숙(198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가족가치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논문집, 73-101.
- 14) 김영옥(1983). 혼전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서울대 석사논문.
- 15) 김 윤(1983).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 16) 김인자·황용연(1974).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

- 관한 연구. 서강대 사회문제연구소.
- 17) 김일명(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18) 김정옥(1980).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관계. 부산여대 논문집 8집, 287.
 - 19) 김태길(1969). 세대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 아세아학보 6, 80-81
 - 20) 김태길(1996). 한국윤리의 재정립. 철학과 현실사.
 - 21)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 22) 김혜선·김영희(1983). 배우자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07-125.
 - 23) 문숙재·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49-166.
 - 24) 박경란·임준희(1989). 노년기의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생활만족도. 인제논총 5, 129-158.
 - 25) 박성연(1986). 자녀에 대한 가치관-어머니와 딸 두세대간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4), 189-197
 - 26) 박순희·함귀옥(1986). 남녀 대학생들의 데이트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상명여대 가정교육학회 논문집, 20-28.
 - 27) 박인덕(1973). 한국인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숙대 아세아 여성연구 제12집, 151-174.
 - 28) 박재간·임춘식(1983). 노인학교 노인교실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29) 박진숙(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29-147.
 - 30) 박태운(1983). 도시주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31) 박혜인(1988). 한국농촌여성의 가족주의 가치관 분석. 여성문제 연구 16집, 효성여대.
 - 32)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Ⅲ. 교문사.
 - 33)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 34) 서병숙·김윤(1983).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권 2호, 127-138.
 - 35) 성규탁(1995).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1), 1-14.
 - 36) 송재희(1988).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37)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권 2호, 167-181.
 - 38) 옥선화(1980).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구조 분석. 성심여대 논문집 11, 88-90.
 - 39) 옥선화(1984).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Ⅱ. 교문사.
 - 40)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41) 유영주(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 연구. 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2집, 127-150.
 - 42) 이동수(1987). 가족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52권.
 - 43) 이기숙(1984). 여대생과 그 부모의 결혼에 대한 태도의 차이. 부산여대 학생생활연구소보 3.
 - 44) 이길표(1984). 가정규범에 관한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의 가치의식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2(3), 135-146
 - 45) 이미숙(1997).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요인 연구: 가족주의가치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생활과학연구논문집 13, 87-105.
 - 46) 이선자(1989). 각 연령군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노년학 9, 79-91.
 - 47) 이연주(1984). 한국가족의 변화에 관한 일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권 2호, 109.
 - 48) 이영하(1975). 노인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방안. 공주사대논문집 13.
 - 49) 이정숙(1985). 여대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 한국생활과학연구 3집, 367-383.
 - 50) 이정연(1982).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51) 이정우·오연옥(1995). 근로청소년(여성)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권 4호, 25-38.

- 52) 이천세(1973). 농촌지역주민의 가치관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 53) 임지희(1989). 한국노인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54) 임춘희(1987). 분거한 도시 장남부부의 부부의식 유형.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55) 장휘숙(1995). 가족심리학-가족관계의 발달. 박영사
- 56) 전미향(1988). 대학생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57) 정영숙·이선자(1980).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18, 25.
- 58) 정원식(1969). 정의의 교육. 배영사.
- 59) 조양지(1984). 보건전문대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인하대 교육석사논문.
- 60) 조영숙(1980). 전문대학 여대생의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순천농진 논문집 17, 311-332.
- 61) 정중희(1983). 어머니의 성역할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논문.
- 62) 정현희(1978). 시간적 차원에서 본 가족의 가치관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63)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1). 대안가정학회지 22(2), 91-112.
- 64) 한국인구보건원(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 65) 한은주·김태현(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 14, 95-116.
- 66) 허 훈(1988). 한국대학생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8권, 89-106.
- 67) 홍승직(1971).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한국사회학연구총서.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 68)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논문.
- 69) Bengston, V.L.(1975). Generations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358-371.
- 70) Bengston, V.L., Cutler, N.E. Mangen, D.J. & Marshall, V.W.(1985). Generations, cohorts, and relations between age groups. In R.Binstoc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Van Nostrand Reinhold.
- 71) Bengston, V.L.(1989). The problem of generations: Age group contrasts, continuities, and social changes. In Bengston & K.W. Schaie(eds.), *The course of later life*. Springer.
- 72) Colman, M. & Ganong, L.H.(1984). Effect of family structure on family attitudes and expectations. *Family Relations* 33, 425-432.
- 73) Harris, R.J.(1980).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ethnicity, socioeconomic status and generation on familism and sex role orientations. *J.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1, 173-193.
- 74) Leavy, R.L. & Hough, O. B.(1983). The value and cost of children cross-generational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pare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2, 57.
- 75) Lueptow, L. B.(1980). Social structure, social change and parental influence in adolescent sex-role socialization : 1964-1975. *JMF* 42, 93.
- 76) Mason, K.O.& Bumpass L.L.(1975). U.S. Women's sex role ideology, 197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5), 1212-1219.
- 77) Melton, W. & Thomas(1976). Instrumental and expressive values in mate selection of black and white college students. *JMF* 38(3), 509-517.
- 78) Newcomer, S.F. & Udry, J.R.(1984). Mothers influence on the sexual behavior of their teenage children. *JMF* 46, 477-485.
- 79) Schaie, K. W.(1996). Generational differences. *Encyclopedia of Gerontology*. Academic Press.
- 80) Smith, M. D. & Self, G. D.(1980). The congruence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sex-role attitudes. *JMF* 42, 105-109.
- 81) Surra, C.A.(1990). Research and theory on mate selection and premarital relationships in the 1980s. *JMF* 52(4), 844-865.